

17세기 이여순(李女順) 소문의 힘과 가부장 사회의 대응*

홍나래**

<차 례>

1. 서론
2. 이여순 스캔들의 발생과 전개
3. 이여순 소문의 저항성과 여성 공동체의 힘
4. 여성들의 자아발현에 대한 가부장 사회의 배제와 포섭
5. 결론

<국문초록>

이여순(李女順)은 조정 대신 이귀(李貴)의 딸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가, 1614년 오언관(吳彦寬)이라는 남성과 불교 수행을 위해 가출한 후 체포되어 조정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관련자들이 치죄되는 과정에서도 모호하게 사면되어 자수궁에 머물렀고, 이후 인조반정을 도왔다고 재평가 받는 등 복잡하게 해석되는 인물이다. 본고는 이여순 스캔들이 발생한 데에 독특한 개인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초 여성들의 삶과 욕망이 뒷받침되었다고 보고, 생불(生佛)과 숨은 반정공신 사이의 거리는 그를 바라보는 담론 주체의 시각 차이임을 강조하면서, 인조반정 이후 기록에서 당대 문체적 여성 욕망이 어떻게 질서화 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이여순은 당시에 기존의 가치관과 여성관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수행하는 보살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여성들은 그녀를 만나려고 정성을 쏟거나 수행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간통으로 몰린 이여순이 살아남고 영향력을 행사한 데에는 생불 소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854)

** 이화여대 강사

문을 퍼뜨리며 잠재적으로 연대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그녀의 소문은 그만큼 저항적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내명부 고위층에서부터 사대부 첩실이나 공노비에 이르기까지 계급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여성 집단 특유의 친교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믿음, 경제적인 관계로 공고하게 맺어 있었다. 다만 인조반정 이후 기록은 이여순이 자수궁에서 항상 친정과 시가를 염려했다고 강조하면서 당대 여성공동체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문화변동기에 다양하게 자신을 발현시키고자 한 여성들의 움직임에 배제하고 여성을 다시 가족 내 존재로 포섭하려고 한 가부장 사회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17세기 초 이여순 스캔들을 통해 가부장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여성들이 일과 신앙, 친목을 도모하던 공동체 속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자이를 발전시켰다고 재구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적 압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대안적인 윤리로 발전되지 못했다 해도, 임란 이후 여성들이 기존 가치를 회의하면서 주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변화를 추구한 과정이었음에 의의를 두었다.

주제어 간통, 공동체적 자이, 불교, 생불(生佛), 소문, 여성 공동체, 이귀, 이여순, 이예순, 인조반정, 17세기

1. 서론

이여순(李女順)은 조정 대신 이귀(李貴 1577-1633)의 딸이자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의 형수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가, 광해군 6년(1614년) 오연관(吳彦寬)이라는 남성과 불교 수행을 위해 가출한 후 체포되어 조정에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기 때문에 규범을 벗어난 그녀의 스캔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었지만, 모호하게 사면된 이후 후대 기록물에서는 궁녀들과의 관계나 인조반정의 주역이 된 친정 및 시가에 연결되면서 그녀의 인물평 역시 복잡하게 굴절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여순은 인조 반정공신 이귀의 딸로 남성과 학문적 유대감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궤절 논란과 함께 비구니가 된 독특한 여성으로 소개되었다.¹⁾ 광해군 시대 불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왕실 여성들과의 폭넓은 관계를 바탕으로 불교를 기복신앙화 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거나,²⁾ 반대로 왕실 불교에 관여하면서 불법을 수호한 인물로 긍정되기도 하였다.³⁾ 또한 그녀가 감옥에서 자기의 심경을 한 시로 남겨 형제들에게 전했다기 때문에 특이한 삶을 산 여성 작가로 언급되거나,⁴⁾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녀의 삶을 정리하며 다면적인 인물로서 대중문화콘텐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⁵⁾

위의 저술에서는 이여순 사건을 조선사회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행보로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내포된 당대 여성

- 1) 이여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신익철과 이향순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여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여 독특하고 다면적인 그녀의 인물상을 부각시켰다. 이향순의 경우에는 비구니로서의 여순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었다. -신익철, 『광해군 시절 여승 이예순(李禮順)의 일행』, 『문헌과 해석』 29호, 문헌과 해석사, 2004; 이향순, 『조선시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 전국비구니회 엮음,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예문서원, 2008; 이향순, 『비구니와 한국문학』, 예문서원, 2008. 그 외에 이여순의 삶에 대한 소개는 김용흠, 『조선후기 인조대 정치론의 분화와 변통론』,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05;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3;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역사문제연구소, 2003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고영섭, 『광해군의 불교인식』, 『한국불교사연구』Vol. 2,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 3) '제6중창주 예순비구니 약전', 『청통사지』, 청통사, 1972; 황인규, 『광해군과 奉印寺』, 『역사와 현실』 38, 역사실학회, 2009; '이귀의 딸 이예순 스님 -유교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목숨을 바쳐 불법 구하다', <법보신문> 23, 법보신문사, 2013.1.23.
- 4) 이능화 저, 김상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김지용, 『한국 여류 한시의 시계』, 여강출판사, 2002.
- 5) 신익철,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드라마·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어우야담』과 <왕의 여자>·<황진이>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6.

들의 정체성이나 욕망, 권력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불법을 수행하기 위해 가출했다가 의금부에 잡혀 온 이여순과 그를 둘러싼 성속(聖俗)의 논쟁이 발생한 데에 시대를 앞선 독특한 개인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가족·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던 당대 여성들의 삶과 욕망이 뒷받침되었다고 보고 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여순 담론이 동일 인물을 상반되게 그려내는 데에는 스캔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뿐만 아니라 이를 후대에 통합하여 재평가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조반정 이후 기록자들의 관점으로 당대 문제적 여성 욕망이 어떻게 지배담론으로 질서화되며 재배치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여순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어우야담』 이외에도 『혼정편록』, 『속잡록』, 『택당집』, 『응천일록』, 『구전집』 등 동시대 인물들이 기록한 문집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공사건문록』, 『연려실기술』, 『진휘속고』 등 후대 기록에도 존재하는데 그 시각이 모두 같지만은 않다.⁶⁾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다양하게 산재된 이여순에 대한 자료를 모아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기록자들의 서술시각을 바탕으로, 모호하면서도 위협적이었던 이여순 스캔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다양한 여성 인물들의 삶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면서 문화 변동 시기 스캔들이 갖는 문화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여순(李女順), 이예순(李禮順), 영일(英一, 英日, 迎日) 등 문집마다 다른 그녀의 이름을 『광해군일기』에 처음 기재된 ‘이여순’으로 통일하여 칭하겠다.⁷⁾

6) 이향순(2008)은 『청룡사지』, 『봉선사본말사약지』와 같은 寺誌에서도 이여순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밝혔듯이 사지는 이여순의 가계를 오인하는 등 후대에 편찬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많아 본고에서는 불교계의 시각 중 하나로 참고할 뿐 여순에 대한 주요 고증 자료로 삼지는 않는다.

2. 이여순 스캔들의 발생과 전개

이여순은 광해군 6년인 1614년, 안음현(지금 경상남도 함양) 산중에서 오언관과 불법을 수행하다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바로 전 해인 1613년, 강변칠우(江邊七友)라고 이름붙인 명문가 7인의 서얼들이 은상인을 살해하자 광해군과 대북파는 이를 빌미로 영창대군과를 소탕했는데, 구실이 되었던 7인 중 박치의(朴致毅)란 자가 도망쳐서 행방을 감추자 조정에서는 지방관들에게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추포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덕유산 자락에 남자 황(晁)과 그의 아내 영일이란 자가 외지로 부터 와서 불법을 수행한다니, 이들의 행적을 의심한 관리가 조정에 사정을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의금부 사람을 보내 즉시 이들을 잡아 올렸다.

그런데 황의 본명이 오언관이고 그 아내가 조정 대신 이귀의 딸, 이여순이라는 사실이 추국에서 밝혀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여순은 김자겸(金自兼)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사망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었는데, 이때 남편 친구인 오언관과 함께 산속에서 부부행세를 하다 잡힌 것이었다. 사족부녀가 음행하여 풍교를 문란하게 하면 간부와 함께 교형에 처해버리겠다고 법률에도 명시된 조선 중후기에는,⁸⁾ 간통 혐의만으로도 가문과 지역사회의 오점으로 여겨 사대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⁹⁾ 더욱

7) 이여순은 가출한 이후 ‘영일’이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에서는 李女順, 英一로 썼으나, 이 기록 역시 후에 英日과 혼재되고 있다. 『어우야담』에서는 이예순(李禮順)이라 했고 영일(迎日)로 개명한 것은 오언관의 죽은 처 이름이라 하였다.

8) 『대전후속록』(중종 38년, 1543) 권5 刑典, 禁制 ‘士族婦女恣行淫慾瀆亂風教者 并奸夫 處絞’.

9) 간통 처벌과 풍교에 대한 의지는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 선조 2년(1569) 하종악 후처의 간통사건으로 조식의 문인들이 일으킨 영남지역 선비들의 옥사는 향촌 곳곳에서 간통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향촌 사대부들의 이념적 시각 속에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록』에 의하면 영남지역에서 음행한 여인의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은 이때부터 생겼다고 한다. 홍나래,

이 오언관은 고(古) 찬성 오겸의 자식이라고 해도 서자였기 때문에 그와 불교에 탐닉하여 부부행세를 한 이여순은 명문사대부 가문의 망신을 특
 특히 시킨 사례로 사대부들의 분노를 샀다.¹⁰⁾

정인홍(鄭仁弘) 등이 이귀(李貴)를 무함하여 죽이려 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여 항상 울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갑인년(1614, 광해군 6)에 고 찬성 오겸(吳謙)의 서자 언관(彦寬)이 과부 이씨와 더불어 거창현 석굴(石窟) 속에 피해 들어가 언관을 황(晃)으로 개명하고 인하여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다. 일이 탄로되자 체포되어 금부(禁府)에 갇혔다가 형장 아래 죽고 이씨는 여승이 되어 자수궁(慈壽宮)에 있었으니, 이씨는 곧 김자겸(金自兼)의 아내요 이귀의 딸이었다. 이에 정인홍이 이귀를 꼭 죽일 기회가 왔다 하고, 이이첨(李爾瞻)과 박재(朴棗) 등을 사주하여 먼저 이귀의 관작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축출할 것을 논하여 아뢰니 임금도 듣지 않고 특별히 추고하여 그 정실을 묻게 하였다. 그 추고에 이르기를,

“이귀는 원래 음흉한 사람으로서 그 전부터 사류를 모함함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므로 오랫동안 청의(淸議)의 버림을 받았고 일찍이 상신(相臣) 정인홍을 엮어 반역이라 지목한 것도 지극히 망측한 일이거니와, 가정을 엄정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남편이 있는 딸을 함부로 놓아 감히 추잡한 무리와 늘 섞여 있게 하다가 그 남편을 졸연히 죽게 하고 마침내는 음탕에 빠져 깊은 산중으로 도망치게 하여 놓고 먼저 죽이기를 청하였으니, 인정과 분의가 도무지 상실된 자입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딸을 역적에게 주고 사족으로서 조행을 잃어 윤리를 무너뜨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사대부라 명칭하여 조정의 반열에 있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 『혼정편록』¹¹⁾

『간통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77쪽 참고; 『선조수정실록』, 1569.5.1.

10) 『광해군일기』(1614.8.19)에서 오언겸은 고 찬성 오겸(吳謙)의 서자(庶子)라 하였으며, 『국조인물고』에서는 열자(孽子)로 기재되어 있다.

이귀는 이전부터 정인홍이 향촌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의병을 사병화한다고 비판하면서 당대 정치적 실세인 대북파와 대척점에 서 있었다.¹²⁾ ‘이귀라는 자가 모임에 와서 흉악한 말을 많이 내뱉었는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욕설뿐이었다’(『고대일록』)거나 ‘이귀는 평생에 상소하는 것으로써 장기를 삼는다. 말은 그른 것을 얼마든지 꾸며댄다.’(『혼정편록』)는 비난처럼 대북파에게 이귀는 따지기 좋아하고 언제나 거리낌이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인물로 기피되었다. 광해군 5년 대북세력은 계축옥사를 일으켜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제남을 죽이고 이듬해인 1614년 영창대군을 죽이면서 서인세력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오롯이 차지하고자 했으므로,¹³⁾ 그들에게 이여순 사건은 이귀를 숙청하는 데에 더할 나위없는 호재였다.

이귀는 바로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도 딸이 중과 간음하게 내버려두어 가문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는데도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불(生佛)이라 자랑까지 하면서 가묘(家廟)에 고하지도 않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춘추 대의(春秋大義)의 멸친지훈(滅親之訓)에 어둡고, 염치가 없으며 국법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중략)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해당되는 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귀는 중히 추고하여 다스리고, 예순은 속히 왕옥에 옮겨 율에 따라 형을 제대로 시행하여 인륜의 처음을 바로잡아 음란한 풍조를 막으소서. - 『광해군일기』 (1619.12.3.)

이귀는 딸이 15세에 혼인하고 그 후 10여 년간 잘 만나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여순이 오연관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걱정하고 급기야 가출하

11) 안방준(1573~1654), 『혼정편록』, 한국고전종합db.

12)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참고.

13) 지두환, 『광해군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2.

자 사람을 시켜 찾아보는 등 평소 행실이 남다른 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러한 염려처럼 딸이 풍속을 문란하게 한 죄로 국문을 받게 되자 그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위태로워졌다. 그는 딸의 종교 교성을 내세우는 대신 죽은 사위의 신실함과 영이함을 추앙하고,¹⁵⁾ 딸의 행위가 남편을 성심껏 따른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출가의외인인 딸이란 사위와 시대에 귀속됨이 마땅함을 피력하면서 자신을 변론하였다. 무엇보다 이귀는 여순이 시형제나 노비, 나정언의 첩 등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어 딸이 외간 남자와 결코 단 둘이 머물지 않았음을 끝까지 변호했으나, 한편으로 정치적인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딸에게 자결을 종용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귀의 딸이 정조를 잃은 일로 사간원에서 삼섬 추국하기를 청하고, 이귀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연려실기술』)고 알려졌듯이 그는 여순의 문제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대북과의 공세로 문외송출까지 논해지게 되었다. 그 후로도 1616년 최귀의 옥사에

14) “...기유년(1609, 광해군 원년) 봄에 신이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와 딸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 그 시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모두 그 방에 있었는데, 언관이 또한 와서 병을 간호하며 의원과 약을 주선하여 친척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이 딸에게 말하기를, ‘남녀의 분별은 인도(人道)의 큰 한계선이다. 저 사람이 비록 네 남편의 친밀한 벗이라 하지만 여자의 도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딸을 다해 꾸짖었습니다. …(중략) 신이 사람을 시켜 수일을 찾아 보았으나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경상 감사가 형조에 보고한 것을 들으니, 안음현 산중에서 오언관이 그 아내와 나정언(羅廷彦)의 첩으로 더불어 동시에 체포되었다 하였습다. 신의 딸이 항상 언관 및 나 목사의 첩으로 더불어 친분이 있었으니, 그 거취가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어 즉시 사람을 보내어 비밀히 탐문해 보니, 그 아내라는 것이 바로 신의 딸이었습니다.…” 『혼정편록』, 한국고전종합db.

15) “그해 8월 5일에 마침내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기 하루 전에 자검이 옆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에는 세상을 떠난다.’ 하였으며, 운명할 때에 시 두어 구절을 짓고 조용히 죽었다 합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혼정편록』,

연루되어 유배를 갔으며 1619년 풀려나와 1622년 평산부사가 되었어도 수차례 정변을 일으킬 혐의가 있다고 반대파의 고변을 받던 처지였으니¹⁶⁾ 아버지로서 조정에서 여순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

1614년 8월19일 광해군은 서청에 나아가 오연관, 이여순, 그리고 함께 잡혀 온 나정언의 첩 정이를 친히 국문했는데, 이후 서얼에다가 간음한 혐의를 입은 오연관은 죽여 버린다. 대신들은 이어 이귀의 딸 여순에게도 벌을 주라고 즐기치게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왕은 ‘이귀의 딸이 정절을 잃었다’고는 언급해도 그녀를 더 이상 심문하려 들지 않았다. 왕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순의 처벌을 미루다 급기야 사면해 버리자 신료들은 ‘사족들이 실행(失行)하고 윤기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 영일(여순)에 대해 정계한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며 분노했고 사간들은 사직을 청했다.¹⁷⁾ 이들의 움직임은 1619년까지 이어져 여순의 형벌을 제대로 시행 하라며 압박했으나, 왕은 그때에도 ‘서서히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¹⁸⁾

당시 이여순 사건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스캔들 속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이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17) 광해군 6년(1614) 12월4일 ‘양사에서 죄인 영일을 금부로 하여금 국문하고 정죄할 것을 아뢰다’; 광해군 7년(1615) 7월16일 ‘사간원이 권엽·박이서·박로의 국문과 정홍좌의 파직을 청하다’; 광해군 7년(1615) 7월17일 ‘사간원이 영일의 안윤과 권엽·박이서·박로 등의 국문에 대해 아뢰다’; 광해군 7년(1615) 7월26일 ‘사간 김질간이 영일에 대한 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광해군 7년(1615) 8월24일 ‘사대부 부인의 비행에 대해 영의정에게도 수의하게 하다’; 광해군 7년(1615) 9월26일 ‘사대부 부인의 비행에 관해 좌의정에게도 수의하게 하다’

18) 광해군 11년(1619) 12월3일 ‘도승지 한찬남이 사족 부녀의 음간을 엄히 다스릴 것을 건의하다’

- 1) 이귀의 딸 이여순은 15세에 김자겸과 결혼하였다.¹⁹⁾
- 2) 김자겸은 젊어서부터 불교를 신앙하여 아내, 오언관과 함께 불법을 닦았는데 내외의 분별이 없었다.
- 3) 1608년 8월 5일. 병이 깊어진 김자겸은 처자를 오언관에게 부탁하며 계를 짓고 죽었다.
- 4) 오언관은 벗이 사망한 후에도 그 집에 드나들며 여순에게 불가의 책을 가르쳐주었고, 여순이 아플 때에는 친척처럼 간호해주었다.
- 5) 1614년 4월. 여순은 부모와 시모, 아들에게 세상을 벗어나겠다고 서신을 남긴 후, 나목사의 첩 정이, 오언관과 노비 몇 사람을 데리고 사라졌다.
- 6) 이들은 안음현 산중에서 불법을 수행하다 붙잡혔는데, 여순과 오언관은 이름을 영일(英一), 황(晁)으로 개명했었고 체포 당시 부부인 척하였다.
- 7) 1614년 8월 19일. 의금부에서 심문하자 이들은 불법을 수행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지 간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8) 이귀를 삭탈관직 하였다.
- 9) 1614년 9월 5일. 오언관을 죽였다.²⁰⁾
- 10) 양사에서 이여순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왕은 여순을 사면하여 자수궁에 귀속시켰다.

여순이 정절을 잃었다고 낙인찍히고 대북파의 정치적 공세까지 가세하여 아버지조차 자결을 권유하거나 왕에게 먼저 처벌을 주청했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왕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북파의 지속적인 요구를 외면하면

19) 『安東金氏翼元公波譜』에는 김자겸과 이여순 사이에 아들 김일화(金鑑禾)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지두환, 『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0, 410쪽 참고.

20) 박정현(1562-1637), 『웅천일록』 1, 한국고전종합db.

서까지 부담을 안고서 여순을 사면한 이유가 다만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순이 지배집단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수궁 궁인으로 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여순 소문의 저항성과 여성 공동체의 힘

『광해군일기』를 비롯한 당시의 기록에서는 그녀를 평가하는 지배 집단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으로 소문을 전달하는 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이가 공초하기를 …(중략) 이씨는 제때에 밥을 먹지 않았고 더러는 20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조금도 주리고 피곤한 모습이 없었으며 혹 한 달이 되도록 잠을 자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온몸에 향기가 풍겼으며 깜깜한 밤에도 대낮처럼 광채가 발산되었는데 3년간 함께 살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더러운 일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1614) 8월 19일

그 후 오언관은 이여순의 집을 마치 친척집 드나들 듯 출입하며 불가의 허다한 책들을 여순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여순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법을 얻었다고 선언했는데, 몸에서는 기이한 향내가 나고 영묘한 광채가 방에 가득한지라, 어떤 사람은 그를 생불이라고 칭하였다. (중략) “제가 생각하건대, 옛날 석가는 왕의 태자로서 나라를 버리고 성을 뛰쳐나가 설산에서 고행한 지 10년 만에 세간에 주재하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지난 겁에 여자의 몸이었던 문수는 제 몸을 돌아보지 않고 도에 참여해 마침내 정각을 이루었으며, 원왕부인은 왕후로서 구법하기 위해 먼 길에 떠났으나 스스로 도달할 수 없게 되자 심지어는 스스로 사서 고행을 했는데, 그녀는 곧 관음

의 전신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역대로 고행했던 자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불법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벌가의 부녀자들이 비구니가 되어 출가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자를 또한 많았습니다. 고금이 비록 다르지만 뜻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어우야담』²¹⁾

『어우야담』을 저술한 유몽인은 이귀와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당대 기록들과는 다른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여순은 오언관으로부터 불가의 책들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을 얻었다고 선언했으며, 몸에서 기이한 향내가 나고 영묘한 광채가 방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생불이라고 칭했다 한다. 이여순과 함께 잡혀와 심문을 받은 나정언의 첩 정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소문을 듣고 정성을 다하여 만나보았다’고 했으며 그녀에게 감화되어 3년을 따라다녔다. 오언관과 여순의 행위를 비난한 사람들 역시 ‘생불이라 자랑’했다거나 ‘선불(仙佛)의 무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에 대한 소문이 상당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²²⁾ 생불이라고 칭송하며 그녀를 만나려고 정성을 쏟은 사람들은 거의 사대부 여성들 혹 그 주변의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사대부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순은 남편 친구 그것도 서열인 자와 사사

21) 유몽인(1559-1623),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돌베개, 2006. 유몽인은 인조반정 후 사형되었기 때문에 이여순에 대해서는 스캔들로 인한 국문 현장까지만 기록되었다.

22) 『광해군일기』에서 한찬남이 이귀를 비난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생불이라 자랑까지 했다’고 고발하였고(1619년 12월3일), 김중칭(1567-1629)의 『구전집』에서도 오언관을 선불이라 하고 여순을 선불의 무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의 행위는 이단에 미혹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苟全先生文集別集』〈朝天錄〉: ‘聞吳彥寬淫於李肅川之女而逃匿安陰地被拿囚 是行也使每談仙佛 …(중략)凡爲異端者 壞人心術 事事耻爲端的 豈無如此負犯 況其女亦爲仙佛之流乎…’)

로이 만나는 문란한 여성일 뿐이지만,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사대부가의 인체를 통해 여순은 불법을 설파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으며 인물의 빛과 향이 예사롭지 않은 신비한 위인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다. 여순을 가까이에서 본 정이는 그녀에 대해 ‘제때에 밥을 먹지 않았고 더러는 20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조금도 주리고 피곤한 모습이 없었으며 혹 한 달이 되도록 잠을 자지 않기도 하는 사람이고 ‘온몸에 향기가 풍겼으며 깜깜한 밤에도 대낮처럼 광채가 발산된’ 신비한 수도자, 보살과 같은 성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즉, 사대부들 입장에서 이여순의 가출 사건은 ‘공공연하게 오언관과 간음하며 산과 계곡에서 놀이난’ 사건이고 불교에 빠져 ‘생불’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였으나, 여순이나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부처나 원왕부인의 출가처럼 귀한 신분을 벗어던지고 수행한 것으로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남녀의 내외 관념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광대하고 초월적인 불법의 세계로 나아간 문화영웅의 행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²³⁾

여성들이 이여순의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녀를 신비화하기에 이른 것은 이여순 개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당대 하위계층과 여인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앙과 관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일깨워줄 누군가를 절실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다양한 전쟁 체험과 그 과정

23) ‘오언관이 공초하기를 …(중략) 급년 4월에 영남의 산수가 뛰어나게 좋다는 말을 듣고 요요한 곳에 가서 파문혀 살려고 계획을 가졌는데 자겸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또한 함께 가려고 하였습니다. 성(性)이 다른 남여가 함께 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만류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광대한 불법 가운데 어찌 이런 구별이 있겠는가. 불도를 위하여 나가는데 비록 몸이 부서진들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하략) 『광해군일기』(1614. 8.19)

에서 기존 가치관과 윤리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중 임금은 의주로까지 피난을 갔지만 남은 백성들은 왜적을 맞아 온몸으로 항거하거나 부역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의지와 항거를 표현하는 데에 막힘이 없었다는 경험의 나눔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사대부 여성뿐만 아니라 관기나 사노비와 같은 천인 신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²⁴⁾ 그러므로 전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욕망하던 이들에게 이 여순의 삶과 지침은 실제보다 더 확장되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소문이란 지배층의 경직된 도덕성이나 여성관·세속적 욕망을 비웃듯이 자유롭게 유명하며 수행하는 여성 보살의 이미지와 초월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여순에 대한 소문은 충분히 저항적인 서사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소문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이렇게 전파되는 소문은 결코 개인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덧붙여지면서 생겨난 집단적인 말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통해 공감하고 연결되면서 집단적인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²⁵⁾ 곧 이여순에 대한 소문이란 당대 여성들이 바라던 대상에 대한 자기암시적 목소리로, 여순이라는 독특한 인물의 삶과 매력에 힘입어 여성들 간 상호 공감 속에 확산되며 이들의 자아 발현 욕망을 촉구시

24) 정지영은 1613년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 하위계층도 충(忠)과 같은 의(義)를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했음을 지적하고, 전쟁충격이 국가가 하층민 및 여성을 인식하는 방식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이 새로운 충의 주체로 호명되면서 유교성별질서에도 균열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忠)의 등장-『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8집, 2011.

25) 한스 J 노이마우어, 박동자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 형성된 소문은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연대하도록 맺어줄 수 있으니, 이여순에 대한 정치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생불’ 소문을 만들며 전달한 사람들은 집권층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언관은 심문을 당하다 죽고 이여순은 감옥에 갇혔다. 이여순이 절구 한 수를 지어 남동생에게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이제 가사 옷 황진으로 더럽히니 祇今衣上污黃塵
 어찌하여 청산은 사람을 허락지 않는가? 何事青山不許人
 감옥은 다만 사대(신체)를 가둘 수 있을 뿐, 圜宇只能囚四大
 금요(의금부)는 나의 원유를 금하기 어렵도다 禁吾難禁遠遊神

“(중략) 이제 대죄 가운데 떨어졌으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형해形骸가 흩어지는 것은 다만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을 따름입니다. 생사의 이치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물며 죄를 범하지 않고 죽게 되었으니,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이에 여한이 없습니다.” - 『어우야담』

궁궐에는 신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존재하면서 왕에게 은근하고 친밀하게 여론을 전달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왕후비빈을 비롯한 수백의 궁녀, 여인들이다.²⁶⁾ ‘기이한 향내가 나고 영묘한 광채가 방에 가득하다’고 할 만큼 신비한 매력을 지닌 여순은 세간의 많은 여인

26) 이익(1681-1764)은 『성호사설』에서 궁녀 수가 684명이라고 언급했지만, 궁녀의 수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늘어난 것이다. 인조대 궁녀 수가 230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광해군 시기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권, 2004. 참고.

들이 한번쯤 만나보고 싶었던 소문 속의 주인공이었다. 불법을 온 몸으로 수행하고자 자신의 신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났던 수도자가 잡혀와 의금부에 구금되어서도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불교적 생사관을 피력했다는데, 그런 여순의 소문을 듣고 본 궁중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광해가 풀어주고 성중(城中) 자수궁(慈壽宮)에 있게 하였는데 이씨가 이것이 인연이 되어 궁중에 출입하니 대궐 안 사람들이 모두 생불(生佛)이라 일컬어 신봉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한다. 궁중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김상궁과 사귀어 모녀 간을 맺게 되었다. -『연려실기술』

여순을 자수궁으로 보내달라고 궁의 여인들이 왕에게 사면을 청했다는 기록은 물론 없다. 하지만 광해가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뚜렷한 이유 없이 여순을 사면하여 자수궁 궁인으로 살게 한 데에는 대중여론을 비롯한 궁중 여인들의 요청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궁녀들이 여순과의 만남을 기대했으리라는 사실은 그녀가 광해의 신임을 받던 김상궁(김개시)과 모녀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중전 유씨 역시 그녀를 보살로 대했다는 소문(『진취속고』), 소용 임씨가 고변을 받은 여순의 가족들을 엄호해 주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²⁷⁾ 이처럼 여순은 왕을 움직이는 내명부 실세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니, 불법을 숭양하던 궁녀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27) ‘...임씨는 일찍이 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이 고변당할 당시 두둔해 준 공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아 죽지 않았으므로 위리(圍籬)에서 폐주를 모시게 되었다...’ 『인조실록』 1623.9.14; 사료적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청룡사지』는 여순이 인목대비의 신임을 받았으며 대비가 유폐된 후에도 정성을 다한 인물이라고 소개하였다. 『청룡사지』, 1972, 139~140쪽 참고.

조선왕조는 선대의 후궁들을 모여 살게 하고자 자수궁, 인수궁, 안일원 등을 두었는데, 이곳은 이전 왕실 비구니원인 정업원처럼 곧 부처를 모셔 복을 비는 곳이 되었고,²⁸⁾ 현종 때(1661) 혁파되기 전까지 자수궁을 위시한 비구니원에는 한때 5000명의 여승이 살았을 정도로 커졌다고 한다.²⁹⁾ 사관들은 자수궁을 역사할 때마다 왕이 새로 궁을 지어 부처를 받드는 장소를 넓힌다고 비판했지만, 선대의 제왕들 역시 그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궁녀들의 지극한 불심과 종교 활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수궁에 소속된 여승이 궁인들과 연결되고, 인조반정 당시 김상궁이 정업원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³⁰⁾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교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유학을 배우고자 해도 끝내 입금을 바르게 하
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지극한 이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도는 조화의 권도를 흠쳐 크게 농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보를 배워 겨우 한 가닥을 터득하자 산림에 자취를 감추고서, 위로는 성수를 축복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 일생토록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어우야담』

불교 역시 여성성에 대한 혐오나 여성적 역할론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사회적 열등감으로 윤색하기도 하지만,³¹⁾ 당시 불교 수행은 여승의 지적처럼 여성 수행자들에게 유교적 현실을 벗어나 영적으로 자아를

28) 이기은,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실행』, 『역사학보』 제178집, 역사학회, 2003.

29) ‘자수궁’.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30) 『광해군일기』, 1623.3.13. ‘상궁 김개시를 베다’.

31) 조승미, 『불교수행론과 젠더 문제』, 『불교학연구』 8호, 2004.

발현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준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라는 신앙 구심점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공부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외출하며 때로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불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여공 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한적이거나 수행할 수 있었다.³²⁾ 수행과 기도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활동은 자매애적인 공동체 정체성을 정립시키게 된다.³³⁾ 더욱이 일반 가정에서 분리되어 궁궐이라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궁녀들이라면 이러한 공동체성은 한층 공고해졌을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욕망과 생각은 집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며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여순이 풍교를 문란하게 한 죄였음에도 살아남아 궁궐에서 궁인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 데에는, 적극적으로 이여순의 소문을 확산시키면서 이를 단순한 말놀이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힘으로 발현시킨 여성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상궁이나 후궁과 같은 내명부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 궁녀에서부터 사대부 첩실이나 공노비들에 이르기까지 계급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네트워크로도 보인

32) 17세기 중반 궁인 노예성(1601~?)이 노년에 4명의 나인들과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할 기록에서도 궁녀들의 교류와 우정이 환갑 이후로도 이어져왔으며 불상을 조성할 만큼 자금을 모으고 공동의 발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훈상, 『17세기 중반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과 늙은 나인 노예성의 발원』, 『호남문화연구』 제51집, 호남문화연구원, 2012.

33) 공동체 연구자들은 ‘공동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동질성을 가진 소집단 ②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 ③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 또한 ‘공동체적인 삶’이란 인간 상호 간 친밀하게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상호 협동·부조하면서 전인격적 관계를 맺어 충만함을 느끼고, 도덕적 현신을 하며 지속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맺고 사는 것으로 본다.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11~15쪽 요약. 본고에서 사용한 여성 공동체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자매애에 관하여는 강선미, 『자매애에 대하여』, 『여성과 사회』 11집, 2000를 참고하였다.

다.³⁴⁾ 이처럼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여순 소문의 내용과 그 반향은 지배계층이 생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고 보다 자유롭게 상상하는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꿈꾸게 한 사건이었다.

4. 여성들의 자아발현에 대한 가부장 사회의 배제와 포섭

‘생사의 이치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죽게 되었으니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다. 이에 여한이 없다’(『어우야담』)고 했던 그녀는 가족 관계나 삶의 욕망에서 벗어난 도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여순의 궁중생활을 기록한 후대 문헌에서는 생불과 같다는 소문의 여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자겸(金自兼)의 아내 이씨(李氏)는 연평(延平) 이귀(李貴)의 딸이다. 일찍 과부가 되어 방외서(方外書 유교(儒教) 이외의 서적)를 많이 읽고 집을 나가 비구니(比丘尼)가 되어 궁녀들의 공경하고 복종하는 바가 되어 왕래하면서 친하게 사귀었다. 마침 계해년(癸亥年 1623, 광해군 15)의 반정 때에 연평(延平)이 사실은 그 일을 주장하였는데, 그 일을 아는 자가 사실을

34) 김건우는 그의 논문에서 인조 대 말치 고변사건으로 국문을 당한 김홍원이 1615년 자신의 첩 말치와의 잘못된 인연을 서술한 『추안급국안』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역시 17세기 초 이여순 사건 무렵 여성들의 관계망과 적극적인 욕망추구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1615년 사직동에 살았던 내수사의 관비 말치는 내의원 사령의 아내였는데, 간통사건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웃인 김홍원을 찾아가 자신이 대북과 한 찬남(韓纘男)의 처와 알고 광해군의 후궁 임소원(任昭媛)의 궁녀들과도 교분이 있으니 자신을 첩으로 삼으라고 협박했다. 이 내용은 국문현장에서 김홍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고자 말치의 폐악함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겠지만, 당대 여성들이 상호 관계망을 통해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건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Vol 44, 역사실학회 2011 참고.

고변(告變)했다. 광해가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사방으로 수색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화란이 장차 헤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이씨가 광해의 총희(寵姬)인 김상궁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임금 사랑하는 뜻을 노래로 나타내었으니, 상궁(尙宮)이 그 가사(歌辭)를 보면 가히 우리 아버지의 평소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였더니, 김상궁이 그 글을 광해의 자리 앞에서 읽는데, 종이에 가득한 내용이 모두 애처롭고 비감한 말이었다. 드디어 아뢰기를,

“임금을 사랑함이 이와 같은데, 억울하게 잡혀 죽게 되면 그 원통함을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광해가 그렇게 여겨 그 일을 늦추게 하였는데, 바로 그날 삼경에 의병(義兵)이 궁궐을 깨끗하게 쓸어버렸다고 한다. 직접 본 늙은 궁인이 뒤에 나에게 말한 것이다. -『공사견문록』³⁵⁾

1614년 스캔들 이후 이여순에 대한 이야기는 인조반정 이후 문집들을 통해 전해지는데, 그녀가 실제로는 친정아버지와 시동생을 위해 끊임없이 변명해서 반정 성공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여순에 대한 인물평이 이렇게 모순적이게 된 것은 과연 여순 개인의 독특한 성향 때문일까?

당대 사대부 여성의 신분으로 불교 수행을 한다며 남편 친구와 집을 나서고 부처로 추앙받아 사람들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한 행보는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뿐만 아니라 인조 반정파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³⁶⁾ 그러므로 광해군의 실정과 패륜을 비판하며 인조를 옹립한 이들은 반정공신 집안이 연루되었던 불미스러운 이여순 스캔들에 대해서도

35) 정재륜 (1648-1723), 『공사견문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동방미디어.

36) 『구전집』의 저자 김중청(1567-1629)이나 『택당집』의 저자 이식(1584-1647)과 같은 이들은 대북파와 노선이 다르지만, 모두 이여순이나 오연관의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평가를 내려 자신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종식시켜야 했을 것이다. 여순에 대한 기록이 스캔들부터 반정까지의 시간에 집중되었고 반정 순간에 미친 그녀의 결정적 공로를 강조한 데에서 이여순에 대한 사대부들의 심리적 부담을 생각해볼 수 있다.³⁷⁾ 여순에 대한 반정 이후의 기록은 소문 당시 보다 긴 시간 속에서 그녀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맞추어 기록한 것이니 인물에 대한 사실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의의를 덧붙이고 있다. 결국 후대의 기록은 여순의 스캔들을 재해석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 사회의 주체들은 17세기 초 여순을 통해 일탈적으로 표출된 당대 여성들의 욕망을 어떻게 수용하고 배제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하담파적록』, 『공사견문록』, 『연려실기술』, 『진휘속고』 등 반정 이후 정리된 이여순에 대한 후대 기록에서 부정되고 배제된 것은 무엇인지 유추하면서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³⁸⁾ 대개 기록에서 파악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 이여순의 아버지 이귀와 오라비 이시백(1581-1660)이 대대로 공신으로서 권력을 누렸던 데에 비해 반정 이후 이여순의 삶에 대한 기록은 미미하다. 청릉사에서 발간한 『청릉사지』에는 예순 비구니가 제 6 중창주로 소개되었으며 1624년(인조 2년) 인목 대비의 명으로 청릉사를 중창하고 영창대군의 명을 빌었으며 71세로 입적했다고 기록되었다. 『청릉사지』는 이향순(2008)의 지적처럼 사료적 신빙성이 낮으나 반정 이후 이여순 가문의 부흥으로 미루어볼 때, 그녀의 종교활동은 원활했을 것으로 보인다.

38) 김시양(1581-1643)의 『하담파적록』, 정재륜(1648-1723)의 『공사견문록』, 이공익(1736-1860)의 『연려실기술』, 장지연(1864-1921)의 『진휘속고』에서는 반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김상공을 비롯한 궁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다. 『하담파적록』에서는 이여순의 시동생인 김자점과 김상공의 결탁을, 『공사견문록』에서는 비구니로 존경받던 여순이 반정 고변으로 위기에 몰린 아버지를 위해 김상공에게 이귀가 썼다는 연군 가사(歌辭)를 보이며 변론한 것을, 『연려실기술』과 『진휘속고』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했다. 『진휘속고』의 경우 조선시대 숨겨진 훌륭한 여성 인물을 소개하고자 했으므로 여순 스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17~18세기 사대부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순의 궁중활동 의의를 가족 보호에 둬으로써 반정 이후 기록들과 동일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이귀의 딸이 김자점의 동생 자겸(自兼)의 아내였는데, 일찍이 과부가 된 후에 정조를 잃고 절간으로 떠돌아다니며 아미타불을 섬겼는데, 앞설에는 자점이 젊어서 불법을 좋아하여 죽을 때에 아내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삼가 불도를 닦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씨가 마침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고 한다. 간음한 일이 발각되어 잡히어 심문을 당하게 되니 궁중에 들어가기를 원하므로 광해가 허락하였다. 일설에서 광해가 풀어주고 성중(城中) 자수궁(慈壽宮)에 있게 하였는데 이씨가 이것이 인연이 되어 궁중에 출입하니 대궐 안 사람들이 모두 생불(生佛)이라 일컬어 신봉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한다. 궁중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김상궁과 사귀어 모녀 간을 맺게 되었다. 항상 말하기를, “아버지 이귀와 시숙 자점의 충성을 불행하게도 대북(大北)이 질시하여 항상 모해를 받는다……” 하였다. 나날이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또 자점을 후원하여 뇌물을 쓰는데 부족하면 김상궁에게서 꾸어서 다른 궁인에게 주고 또 다른 궁인에게 꾸어서 상궁에게 바치니, 이렇게 돌린 것이 수천 냥이므로 모든 궁인들이 기뻐하여 모두 자점을 성지(成之)라 자를 부르며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광해가 유상(惟翔) 등이 아뢰는 말을 듣고 매양 잡아 신문하고 싶어도, 상궁과 개똥이[介屎] 등이 말하기를, “성지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더구나 한미한 선비에 불과한데 무슨 권력이 있어서 다른 모의를 할 것입니까.” 하니 광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잡록(續雜錄)》 ○ 일설이란 것은 《일월록(日月錄)》에 있는 것이다. -『연려실기술』³⁹⁾

『연려실기술』에서도 ‘앞설’·‘일설’이라는 말로 과거 신비로운 수도자란 소문이 언급되지만, 그보다 이여순이 궁중에서 아버지와 시숙의 편을 들면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는 점

39) 『연려실기술』에서는 『일월록』(이성령 1632-?)이나 『속잡록』(조경남 1570~1641)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중간에 세간의 다른 소문들(밑줄친 부분 필자)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연려실기술』은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을 강조하고 있다. 여순은 불법(佛法)으로 궁인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내명부의 실세들과 친하게 지내고 여러 궁인들과 돈거래를 하여 인심을 얻었는데, 이렇게 힘을 지니게 되자 매번 정치적으로 열세였던 양가를 변론하게 되었다고 했다.

17세기 친영제가 자리 잡고 가부장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불안정해졌다. 이야기 세계에서도 여성들은 친정의 명당을 흠쳐가는 딸로 그려지거나 양자와 비교되는 친딸, 믿을 수 없는 아내로 몰리며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시험받는 존재가 되었다.⁴⁰⁾ 특히 가문의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여성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시집에서도 혈연이 아니므로 온전히 수용되지 않는 존재로 소외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에 여순은 평소 아버지인 이귀의 경고와 주시도 무시한 채 오언관과 가출하여 가족들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고, 이귀 역시 스캔들 초기에 딸이란 출가외인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그녀에게 자살을 권유하면서까지 그로 인한 연대책임을 벗어나고자 했다.⁴¹⁾

40)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出嫁外人’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심민호(2005), 「〈명당을 흠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17세기 조선에서 행해진 나쁜 딸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참고.

41) ‘…신의 딸이 나이 15세에 고(故) 석릉군(石陵君) 김탁(金琢)의 아들 자겸(自兼)과 결혼하였고 혼인 뒤에 자겸이 곧 집으로 데려갔으며, 신이 또 항상 외직으로 나돌아 5~6고을을 드나드느라 전후 10여 년간은 사는 데가 떨어져 있었고, 간혹 성중에 있을 즈음에 근친하는 때가 있었으나, 신의 집이 가난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했으니 이르므로 저희들의 하는 짓을 소상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자겸의 사람됨이 젊어서부터 불교를 신앙하여 한결같이 믿어왔고 그 처자도 남편의 말을 익히 들어 또한 띄 불교를 신봉하므로 신이 비록 마땅치 않은 마음이 있었으나 신의 딸은 이미 자겸의 아내이므로 통렬히 금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중략) 박제가 만약 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옥사로 인하여 한번 죄를 논박하는 것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으며, 출가한 딸의 일이 비록 신에게 상관없으나 신이 이미 그 아버지이니, 한 번 죄를 받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여순이지만, 그녀를 종교적 구심점으로 삼아 여러 여성들이 신앙과 일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친밀하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순의 궁중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이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의례나 교육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도 서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모녀 관계로 약속을 맺는 등 신분·성에 구애받지 않는 가족적인 모습으로 사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정 전후를 배경으로 야담에서도 이기축의 처 우씨처럼 가계 경영이나 정치적 판단 역량으로 남편을 성공시킨 훌륭한 아내 이야기가 부각되었던 만큼,⁴²⁾ 이여순의 시대는 여성들의 신분상승과 함께 부에 대한 욕망도 강렬하게 부상된 시기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궁에 있는 여성들 역시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상당히 열심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상호 부조하고 공동으로 불사를 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⁴³⁾ 여순을 중심으로 궁인들이 큰돈을 상호 융통한 상황은 마치 ‘계’와 같은 형태와 유사한데, 경제적 연결고리를 통해 보다 공고하게 친목과 식리를 도모하며 공동

는 것도 또한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런데 박재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을 죽을 땅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치에 당치 않은 말을 온 장에 낭자하게 늘어놓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명께서 위에 계시니 어찌 많은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예로부터 출가한 여자는 그 남편의 집에 있기 마련인데, 박재는 신이 짐짓 말을 함부로 놓았다고 하니 무슨 말이며, 사위가 벼를 잘 사귀고 잘못 사귀는 것과 통내 외하고 않는 것이 처부(妻父)에게 무슨 상관인 있기에 박재는 신이 짐짓 더불게 했다 하니, 어디에 당한 말입니까? (하략)’ -『혼정편록』

42) 부인의 말을 듣고 이이첨과 친해진 후 그에 대한 상소문을 써서 반정 후 자손들이 융성했다는 이야기(『차산필담』 洪女嫁賤致貴錄), 반정공신 김류에게 인사하게 한 박씨 처 이야기(『동괘략송』 光海君時 畿邑朴姓人) 능양군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한 김류 부인 이야기(『매옹한록』 宣廟末年 命仁廟御諱) 등을 들 수 있다. -김현룡(1999), 『한국문헌설화』 3권 참고.

43) 궁녀들이 재산을 증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박상진, 『궁녀의 하루』, 김영사, 2013; 이훈상, 2012 앞의 논문 참고.

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곧 이들의 공동체는 정신적 구심점 아래에서 친밀하게 상호 정치적인 목적을 도우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도 구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여순의 행위와 소문은 여성들의 자아발전 욕망과 대안적 세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확산된 것이었고, 그녀를 위시한 여성들의 힘은 광해군 시절 공세에 몰렸던 반정파조차 구원할 정도로 은근하고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관계망은 내명부 위에서 아래뿐만 아니라 사대부 첩실, 공노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망라되었고, 여성 집단 특유의 친밀감과 종교적인 믿음,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성과 계급의 질서를 흔들어 강상을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치를 어렵게 할 뿐이었다. 결국 가부장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위협적인 여성들의 욕망을 계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여순에 대한 후반 담론은 실패한 여성 공동체의 모습이 냉소적으로 그려진다. 서사의 관점은 궁녀들 간의 금전 거래가 여순에 의해 단위가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궁녀들은 재물에 대한 속물적 욕망에 빠져 여순이 전달하는 그릇된 정보에 충실히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여인들이 대간들의 언로를 막아 임금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으므로, 광해의 몰락도 궁녀들의 재물욕 때문이었다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가장의 권익을 벗어난 여성 개인의 경제활동과 정치적 입김을 혐오하며 경계하고 있다.

44) 계는 식리보다 사교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며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다면적인 양상을 띠는 단체이다. 김필동, 『한국전통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1, 한국이론사회학회, 2002 참고.

‘…사신은 논한다. 궁첩의 폐해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을까마는 폐조 때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중략) 반정한 이튿날 김상공과 몽필은 군문(軍門)에서 목을 베었고, 윤씨는 그뒤 문밖에서 죽임을 당했고, 정씨는 집에서 자살하였다. 임씨는 일찍이 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이 고변당할 당시 두둔해 준 공이 폐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아 죽지 않았으므로 위리(圍籬)에서 폐주를 모시게 되었다. 그 나머지 홍씨·허씨·권씨·원씨는 다 중도 부처(中途付處)되었다.’ -『인조실록』 1623.9.14.

또한 여성들이 가족을 사칭하며 맺은 관계가 인조반정 이후 권력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거저된 것이었는지 처형된 궁인들의 면면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여순이 김상공이나 다른 후궁들과 친밀하게 지낸 것도 의도적인 접근으로 보임으로써,⁴⁵⁾ 탈속적이고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조차 결국 되돌아가야 할 곳은 가족이고, 가족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권모술수까지 일삼았음을 알렸다. 곧 여성은 가족 내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기대되는 업적을 수행해야만 온전한 가족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언제라도 귀책 사유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결국 가부장 사회가 한번 내친 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여순이라는 특별한 여성의 삶을 세간에 알리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순이 자신을 지극히 따르던 여신도들에게 설법과 함께 가족에 대한 염려를 노골적으로 전달했으리라는 설명은, 여인들의 신앙이란 기복적이고 사적 영역일 뿐 이를 통해 새로운 실천 규범을 기대하거나 변화를 희망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시각을 담은 것이다. 이처럼 반정 이후 서사는 여순이 대북과에 적대적인 서인 출신임을 강조

45) 장지연은 『진취속고』에서 여순이 지혜로워 김상공이나 폐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귀와 김자점을 보호했다며 ‘계해년 공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영일(英日)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면서, 당시 여성 공동체가 왕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인 권력에 기대어 이윤을 추구하고 공사영역이 분리되지 않으며 기복적인 신앙에 경도되었던 한계를 조롱하는 데 집중했다. 다시 말해 반정 후 이여순에 대한 재평가는 문화 변동기에 자유롭게 자아를 발현시키고자 했던 다양한 여성주체의 움직임에 배제하고 가부장의 질서에 맞추어 여성을 가족 정체성 속으로 포섭하고자 한 보수주의자들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 하겠다.

여순은 애초의 소문처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부처일 수도 있고 후대 기록처럼 권력 지향적인 여성일 수도 있다. 생불과 숨은 반정공신 사이의 거리는 인물의 격변이라기보다 그를 바라보는 담론 주체의 시각과 지향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가부장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이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자아를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삶을 꿈꾸었으리라는 것이다. 비록 그 행동이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적 암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대안적인 윤리로 발전되지 못했다 해도, 임란 이후 여성들이 기존 가치를 회의하며 주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변화를 추구한 과정이었음은 분명하다.

5. 결론

17세기 사대부가 여성인 이여순은 오인관이라는 남성과 기출했다가 경상도 산중에서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추국을 당한 인물이다. 그런데 불법을 수행한 이여순이 주위 사람들에게 생불로 추앙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이귀가 당대 실세였던 대북파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사대부 여성의 간통 사건과 이귀의 실각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이에 오언관이 장살당하고 이귀가 삭탈관직 당해 여순 또한 치죄될 위기에 처해졌으나 모호하게 사면되어 자수궁에 기거하게 되면서, 이후 사대부들의 비난과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여순과 그에 대한 성속(聖俗)의 논쟁이 발생한 데에 시대를 앞선 독특한 개인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초 가족·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던 당대 여성들의 삶과 욕망이 뒷받침되었다고 보고 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여순 담론이 동일 인물을 상반되게 그려내는 데에는 스캔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었다고 보고, 특히 반정 이후 기록자들의 관점으로 당대 문체적 여성 욕망이 어떻게 지배담론으로 질서화 되었는지 고찰해보았다.

스캔들 당시 기록에서는 이여순을 평가하는 지배 집단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으로 소문을 전달하는 다수의 사람들, 특히 여순을 생불이라고 칭송하며 그녀를 만나려고 정성을 쏟거나 수행에 동참하기도 한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 이여순은 지배층의 경직된 도덕성이나 여성관·세속적 욕망을 비웃듯이 자유롭게 유행하며 수행하는 여성 보살이었다. 이여순 소문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정치적 힘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 후 하위계층과 여인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일깨워줄 누군가를 절실히 열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곧 이여순 생불 소문은 여성들이 바라던 대상에 대한 자기암시적 목소리였기에, 여성들은 소문을 통해 잠재적으로 연대하며 자아발현 욕망을 상호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반하는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간통으로 몰린 이여순이 아버지조차 자결을 권유했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왕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기저에

생불 소문을 퍼뜨리며 잠재적으로 연대한 여성들의 정치적 힘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보았다. 이러한 여성들은 상궁이나 후궁과 같은 내명부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 궁녀에서부터 사대부 첩실이나 공노비들에 이르기까지 계급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여성 집단 특유의 친교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믿음, 경제적인 관계로도 맺어 있었다.

이여순에 대한 후대 담론은 가족과 집을 버리고 떠났던 여순이 자수궁에 들어가서는 항상 친절과 시가를 염려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족 내의 존재로 귀속시키고 있었다. 또한 기록은 여순에게 호의적이었던 다수의 궁인들이 체결된 역사적 사실을 여성 공동체의 부패와 종말의 강력한 증거로 삼아, 당시 여성 공동체의 신앙, 친목, 금전 관계의 한계를 부각시켰다. 여순에 대한 후대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자아를 발현시키고자 했던 다양한 여성주체의 움직임에 배제하고 가부장의 질서에 맞추어 여성을 가족 정체성 속으로 포섭하려고 한 기득권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본고는 17세기 이여순 스캔들을 통해 가부장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일과 신앙, 친목을 도모하던 공동체 속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자아를 발전시켰음을 재구해 보았다. 이러한 행동이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적 압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대안적인 윤리로 발전되지 못했다 해도, 임란 이후 기존 가치를 회의하면서 여성들이 주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변화를 추구한 과정이었음에 의의를 두었다. 이렇듯 17세기 초 새로운 질서와 삶을 열망했던 여성들은 보다 강력한 대안적 세계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바람은 18~19세기 천주교 유입 과정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공동체적 종교 활동과 주체를 향한 열정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 변동기 속 여성에 대한 소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대전후속록』,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영인판, 1997.

김중청, 『구전집』, 한국고전종합DB.

박정현, 『응천일록』, 한국고전종합DB.

안방준, 『혼정편록』, 한국고전종합DB.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역, 돌베개, 2006.

이궁익, 『연려실기술』, 한국고전종합DB.

이능화, 『조선여속고』, 김상억 역, 동문선, 1990.

이 식, 『택당집』, 한국고전종합DB.

장지연, 『진휘속고』, 『장지연전서』, 동양학총서,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9.

정재륜, 『공사견문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동방미디어.

조경남, 『속잡록』, 한국고전종합DB.

『광해군일기』, 한국고전종합DB.

『선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인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동아일보』 1934.10.23. ~ 1934.10.24.

『청룡사지』, 청룡사, 1972.

『법보신문』 23, 법보신문사, 2013.1.23.

강선미, 「자매애에 대하여」, 『여성과 사회』 11집, 2000, 64~79쪽.

고영섭, 「광해군의 불교인식」, 『한국불교사연구』 2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229~280쪽.

김진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 실학』 44집, 역사실학회, 2011, 59~89쪽.

김용흠, 『조선 후기 인조대 정치론의 분화와 변통론』,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327쪽.

김지용, 『한국 여류 한시의 시계』, 여강출판사, 2002, 1~683쪽.

김필동, 「한국전통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1, 한국이론사회학회,

2002, 15~48쪽.

박상진, 『궁녀의 하루』, 김영사, 2013, 1~310쪽.

신명호, 『궁녀』 2판, 시공사, 2012, 1~305쪽.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1~264쪽.

신익철, 「광해군 시절 여승 이여순(李禮順)의 일행」, 『문헌과 해석』 29호, 2004, 문헌과 해석사.

_____,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드라마·영화의 창조적 상상력-『어우야담』과 <왕의 여자>·<황진이>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한국한문학회, 2006, 337~354쪽.

심민호, 「<명당을 흠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17세기 조선에서 행해진 나쁜 딸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301~330쪽.

이기운,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실행」, 『역사학보』 178집, 역사학회, 2003, 29~58쪽.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3, 1~235쪽.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出嫁外人’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187~230쪽.

이향순, 『비구니와 한국문학』, 예문서원, 2008, 1~317쪽.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1~652쪽.

이훈상, 「17세기 중반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과 늙은 나인 노예성의 발원」, 『호남문화연구』 제51집, 호남문화연구원, 2012, 223~258쪽.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역사문제연구원, 2003, 83~116쪽.

전국비구니회 엮음,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1~400쪽.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忠)의 등장-‘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8집, 2011, 157~184쪽.

조승미, 「불교수행론과 젠더 문제」, 『불교학연구』 제 8호, 불교학연구, 2004, 83~122쪽.

지두환, 『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0, 1~477쪽.

_____, 『광해군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2, 1~324쪽.

최선혜,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생불(生佛)”사건」, 『역사학연구』 50, 호

남사학회, 2013, 121~160쪽.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269~342쪽.

홍나래, 『간통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204쪽.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권, 2004, 241~267쪽.

황인규, 『광해군과 奉印寺』, 『역사와 현실』 38, 역사실학회, 2009, 55~77쪽.

윌터 J 응 저,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1~301쪽.

한스 J 노이마우어 저, 박동자·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294쪽.

ABSTRACT

The influences of Lee yeo-soon(李女順) scandal in 17th century
and the patriarchal society's response to this scandal.

Hong, Na-rae

Lee yeo-soon was the widow whose father Lee Gyi(李貴) was the famous aristocrat in 17th century. In 1614(the 6th year of king GangHae), she broke away from home for execution of Buddhism with her male-friend O Eon-kwan(吳彦寬). And this incident caused for them to be arrested on a charge of adultery. Because of this scandal, Mr. O Eon-kwan was beaten to death in the process of the inquisition and Lee Gyi lost his position of government official, but Lee yeo-soon was favored with amnesty without any good reason then stayed in the Jasoo Palace(慈壽宮). After this, she was not only welcomed from royal concubines and court ladies, but also she was recognized as the hidden contributor to depose king GangHae(光海君).

For these kinds of reason, the character of Lee yeo-soon came to be complicated. In this thesis, I found that this scandal is not individual incident, but representative incident containing the desire of women in 17th century. and also I found that the differences of understanding of her characters(some people think of her as a living buddha, and some people think of her as a hidden contributor in political incident) make her a mysterious woman. Therefore I considered how the patriarchal society reordered the women's problematic desire after enthronement of a new king.

The rumor of Lee yeo-soon was very resistant to patriarchy. At that time Lee yeo-soon was well known as the living Buddha who ha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B5A07048854)

surpassed the traditional values, and many women were eager to meet her, even some of them joined her practicing asceticism. I inferred the women who spread the rumor and believed in her could have an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Lee yeo-soon scandal.

The women's network was comprised of diverse class such as ladies of a court, nobleman's concubines, even slaves. They related intimately with religious belief and economic ties. But after the enthronement of a new king, the Joseon Society established patriarchal order to criticize the sisterhood and to record that Lee yeo-soon had been anxious for her father and her brother-in-law supporting them confidentially in the palace. This point of view intended to emphasize women's family identification excluding women's desire for identity on those days.

Through Lee yeo-soon scandal, I reconstructed 17th century that the women could form public opinions in sisterhood and develop the communal self. These women's conduct had severe limits, for example they pursued power relying on the king and could not make ethical alternative. Nonetheless it was significant incident that the women in 17th century felt doubts about conventional value and attempted to change their life.

Key Words

scandal, sisterhood, buddhism, the living Buddha, 17th century, the communal self, adultery, Lee yeo-soon(李女順), InJo Banjeong(仁祖反正, the king InJo Restoration)

논문투고일 : 2014. 10. 1

심사완료일 : 2014. 11. 28

게재확정일 : 2014. 12. 3